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5. 11. 2. Vol. 44

■ 농정이슈

농업보조금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언론동향 및 설명자료 등

■ 정책브리핑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

■ 연구지원

2015년 3분기 국내인구이동

■ 현장여론

발농업 실태와 경쟁력 제고 방안

▣ 농정이슈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 농업보조금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언론동향 및 농식품부 해명

- [한국경제, '농업보조금 구조조정 해야' 기사 발표, 10.23.] 국회예산처 '농업 보조사업 평가' 보고서 인용
 - (늘어나는 농업보조금) △2015년 보조금 규모 6조 5000억 원 수준·2008년 5조 3000억 원 대비 1조 원 이상 증가, △커진 규모에 비해 정책 효과가 뒤따르지 못함, **보조금이 시장을 오히려 왜곡**
 - (농업용 면세유 지원, 기자재 영세율 적용) △농가의 정부 의존성 부추기고, 농가 부채 늘려 경쟁력 저해, △이앙기, 콤바인 등 **농기계 10% 이상 공급 과잉**
 - (비료농약 지원) 친환경 농업 육성을 정책 목표로 하는 정부 방침과 모순
 - 보조금이 특정 사업에 몰리면서 **과잉 투자 유발**
 - (쌀 직불금 소득에 따른 양극화) ha당 연평균 100만원 쌀 고정직불금 지원·**대규모 농가일수록 많이 받도록 설계**
 - ※ 0.2ha 미만 영세농 평균 지급액 13만 1,000원, 10ha 이상 농가 지급액 1,351만 4,000원
- [농식품부, 보도 관련 설명자료 발표, 10.23.]
 - (면세유 관련) △면세유 지원과 농기계 공급 과잉은 직접적 관련성 없음, △면세유 공급량 지속적 감소 추세, △개별농가의 농기계 구입 보조는 지원 없음
 - ※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 : ('03) 295kl → ('13) 171 → ('14) 164
 - (비료농약 지원 관련) △친환경농업 저해하는 화학비료와 농약은 지원 없음,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하는 등 **친환경 농업 정책 성과 나타나는 중**
 - ※ 화학비료 사용량 : ('99) 401kg/ha → ('04) 385 → ('09) 267 → ('14) 258
 - (쌀 직불금 관련) 쌀 수매제 폐지에 따른 가격하락의 위험을 흡수하려는 목적, 쌀 값 하락시 높은 경영위험에 노출되는 대농이 많은 직불금 받도록 설계
 - 농가간 양극화 문제를 최소화하고 소규모 경영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단위의 공동경영체 육성과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을 강화**
 - '14년 농가소득 '12년 대비 12.6%↑·**농식품 정책의 성과가 일정수준 나타나는 중**
 - ※ 농가소득 : ('12) 31,031천원 → ('13) 34,524 → ('14) 34,950

자료 : 이투데이·한국경제·헤럴드경제(2015.10.23.)

참고 : 농식품부 설명자료_「농가 자생력만 해친 농업보조금, 구조조정해야」(한국경제) 보도 관련 설명 (2015.10.23)

농정이슈

’15년 한발대비 용수개발 추가예산 지원

- [농식품부, 가뭄피해예방 위한 용수개발 예산지원안 발표] 내년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 예상되는 103개 지역(3만 ha)에 대한 선제적 가뭄대책
 - (기준지원규모) 8월말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저수지 준설 추정예산 등 665억 지원, 758개소에 대한 용수원개발 추진 중
 - (추가지원규모) 100억 원…현 저수량 및 향후 예상강수량에 따른 분석결과 토대로 농업용수 부족 예상지역에 대해 가뭄대책비 긴급 지원
 - ※ 국고지원액 : 인천 26억 원, 경기 1.8억, 충북 8.7억, 충남 35억, 전북 13억, 경북 15억
 - 인천 강화군 북부지역(김포→강화 간이양수 및 송수시설 설치 등 33억 원), 충남 보령시 부사호(염해방지 표층수 취수시설 설치 등 7억 원), 경북 문경시 경천저수지(양수장 설치 등 15억 원)에 대한 특별대책 가능

자료 : 아시아경제쿠키뉴스(2015.10.25.) / 국제뉴스대전투데이(2015.10.27.) / 한국농업신문(2015.10.28.)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식품부, ’15년 한발대비 용수개발 추가예산 지원」(2015.10.22.)

도농협력 일자리연계 사업 적극 추진

- [농식품부, 도농협력 일자리연계 사업 추진] 농업 생산의 계절성으로 인한 농번기 인력부족 문제에 적극 대처
 - 도농협력 일자리연계 사업…농업인과 도시의 구직자 연계하여 **농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농가 인력 확보**, 일자리 참여자에게 숙박·교통·보험 등의 편의 지원
 - 현재 6개 지역행복생활권의 16개 시군이 선정되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중
 - ※ 농번기 일자리 연계서비스 개시 : 거창·함양·산청(1월~), 임실·순창·남원(4월~), 나주·화순(4월~), 담양·구례·곡성(6월~), 단양·제천(6월~), 함천·밀양·창녕(사업준비)
 - ※ ’15.1.1.~10.13. 일자리 중개 실적 : 25,105건
 - 도농일자리 연계 사업 실시…전국 지자체 대상 농번기 인력수요 조사 후, 도시 구직자 일자리지원기관에 일자리 정보 제공하여 농촌의 일손부족 지자체와 연계, △1차 사업…9월, 서울시인생이모작센터, 나주·단양 협업 시행, △2차 사업 준비 중…의성·임실·구례·단양·밀양 참여 계획

자료 : 농촌여성신문-전라일보(2015.10.26.) / 한국농업신문(2015.10.27.) / 전업농신문(2015.10.29.)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도농 연계 협력으로 도시 일자리 부족과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지원」(2015.10.23.)

농정이슈

가뭄 피해 보험금 최고수준 지급 추정

- [농식품부, 가뭄 피해 보험금 지급 예정] 농업인 경영안정 위한 재해복구비 지원 및 보험가입 농가에 대한 보험금 지급
 - 가뭄으로 5,978ha의 농작물 피해 발생한 충남 서산 등 5개 시군에 13.3억 원 (국비 9.3, 지방비 4.0) 재해복구비 긴급 지원
 -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피해 조사 후 **보험금 36.7억 원** 지급 예정…**재해보험제도 도입 이후 최고수준**
 - ※ 추정치 : 1,625농가, 4,644ha
 - **농업분야 가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며 최종 확정 시 발표

【가뭄피해로 인한 재해보험 사고접수 현황 (10.21.기준)】

(단위: 호,ha,백만원)

시도	피해농가수	피해면적	추정보험금
경기	38	154	32
강원	11	33	10
충남	661	3,310	2,655
전북	47	47	55
전남	294	319	197
경북	11	11	8
경남	13	6	7
인천	547	761	598
광주	3	3	11
합계	1,625	4,644	3,573

자료 : KBSKNS뉴스통신뉴스스테일리한국매일일보세계일보시민일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 이투데이-제민일보-폴리뉴스헤럴드경제(2015.10.23.) / 국제뉴스(2015.10.24.) / 동양일보-전라일보-충남일보-충청일보(2015.10.25.) / 농민신문-전북일보(2015.10.26.) / 전업농신문(2015.10.29.)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후 가뭄피해 보험금 최고수준 지급 추정」(2015.10.22.)

농정이슈

적과전종합위협방식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 [농식품부, 적과전종합위협방식 보험상품 판매 개시] 봄철 저온·폭설·서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장
 - ※ 적과(과실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과실을 숙아내는 일)·전·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해당하는 종합적 위험 보장, 적과 후·특정위험(태풍·집중호우·우박·가을동상해)만 보장
- **판매지역 확대** △'13년 출시 배(적과전종합) 상품·12개 시·군→30, △'14년 출시 단감(적과전종합) 상품·3개 시·군→12
- **사과(적과전종합) 대상 보험은 첫 출시**·경북 안동·문경·포항 지역 판매
- 겨울철 및 봄철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5종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배 품목 시작으로 **단감, 사과 등 순차적으로 적과전종합위협방식의 상품 판매 계획**
 - ※ ('13)배 → ('14)단감 → ('15)사과 → ('16)뽕은감 → ('17)감귤
- **정부지자체에서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50%·30% 내외 지원**

자료 : 농촌여성신문대전일보전민일보한국농업신문(2015.10.28.) / 뉴스웨이뉴스시전농신문(2015.10.29.)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겨울철 재해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2015.10.27.)

2015 막걸리 페스티벌 with 우리술 대축제 개최

- [농식품부, 막걸리와 우리 술 축제 개최, 10.29.~11.1., 가평 자라섬] 막걸리 소비 활성화 위한 **‘막걸리의 날*(10월 마지막 주 목요일)’ 기념 행사 확대**
 - ※ 쌀 증만생종(전체의 95%차지)의 수확시기, 도정·술담금기간 등을 감안하여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막걸리의 날로 지정('11년도)
 - **전국 200여종의 막걸리**와 그에 어울리는 시대별 안주, 막걸리 전문점 안주, 지역 특산안주 등 제공
 - **‘2015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시상식** 진행
 - ※ 수상제품(대상): 느리마을라이트막걸리(배상면주가)/ 백련살균 미스티(신평양조장)/ 산양산삼가든 별(대농바이오)/ 추사애플와인(예산사과와인)/ 안동소주일품 40도 골드(안동소주일품)/ 북분자아락(배상면주가 고창 LB)/ 담술(명가원)/ 허니비와인(아이비)
- 자료 : TBS교통방송경기신문경기일보경인일보경제풍월농민신문뉴스·뉴스시대전투데이며니위크메디컬투데이션이일보연합뉴스에이빙뉴스조선일보중부일보쿠기뉴스파이낸셜뉴스프라임경제(2015.10.29.)
-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깊어가는 가을, 막걸리와 우리 술 추억 여행」(2015.10.27.)

농정이슈

전문농업경영인 45명 선정

- [농식품부, 농업마이스터(전문농업경영인) 45명 선정] 농업마이스터 벤치마킹 국외연수와 ‘마이스터 역량강화 아카데미’ 등의 **교육 후 현장실습 강사, 품목 컨설턴트로 활동**
 - ※ 농업마이스터 :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을 갖추고 이를 다른 농업인 등에게 교육·컨설팅을 할 수 있는 ‘농업분야 최고의 장인(匠人)’
-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강의 시연’등을 심사

품목별 합격현황

구분	응시자(명)	최종합격자(명)	합격률(%)
수도작	31	0	0.0
전작	8	2	25.0
사과	91	5	5.5
배	37	2	5.4
포도	31	2	6.5
복숭아	23	3	13.0
단감	16	1	6.3
감귤	14	2	14.3
아열대과수	1	0	0.0
참다래	12	0	0.0
딸기	55	2	3.6
파프리카	8	1	12.5
조미채소	7	0	0.0
시설채소	58	4	6.9
화훼	32	1	3.1
토마토	50	2	4.0
블루베리	20	2	10.0
인삼	26	2	7.7
버섯	85	3	3.5
조경수	17	0	0.0
한우	111	4	3.6
양돈	33	1	3.0
양계	23	1	4.3
축염소	15	1	6.7
친환경경종	10	0	0.0
친환경과수	18	2	11.1
친환경채소	33	2	6.1
합계	865	45	5.2

자료 : 아시아경제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세계일보문화일보(2015.10.23.) / 농민신문(2015.10.26.)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대한민국 농축산업 최고의 장인(匠人) 45명 탄생하다 !」(2015.10.22.)

농정이슈

2015 농산물 직거래로컬푸드 페스티벌 개최

- [농식품부, 2015 농산물 직거래로컬푸드 페스티벌 개최, 10.28~11.8.] 농산물 유통 개선대책 핵심과제의 하나로 진행
 -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제철꾸러미 등 5개 유형 21개의 우수한 **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와 직접 만나 교류**
 - 직거래 페스티벌과 별도로 전국의 로컬푸드 직매장 등이 참여하는 전국 행사 통해 **직거래 유통 붐 확산**
 - (직거래 추진 실적) **△로컬푸드 직매장**...12년 3개소 →'15년 9월말 98, 총 거래액 1천억 원 돌파, **△농산물 꾸러미 거래액**...13년 193억 원→'14년 303, **△농산물 사이버 거래액**...13년 2조 2천억 원→'14년 2조 7천억 원
 - (주요 성과) 직거래를 통한 절감액 약 7,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자료 : MBN뉴스시스템남일보아시아경제아주경제연합뉴스전북도민일보충남일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2015.10.27.) / 농민신문디지털타임스브릿지경제서울신문아주경제이데일리투데이일간스포츠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2015.10.28.) / 국민일보뉴데일리뉴스1뉴스동아일보매일경제메트로신문미디어넷세계일보스포츠통향아크로팬연합뉴스프라임경제(2015.10.29.) / 농촌여성신문(2015.10.30.)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전국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한 곳에 모인다」(2015.10.26.)

김장체험 즐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10선

- [농식품부, 김장체험 즐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10선 선정] 지역에서 수확한 특산물로 만드는 김장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체험마을 선정

지역	마을명	관련 체험	연계 관광자원
경기	양평 가루매	김장김치만들기, 감자전	용문산, 세미원
강원	인제 하늘여울소치	김장체험, 손두부만들기	자작나무숲, 번지점프
	춘천 원평팜스테이	김장 담그기, 배추무 체험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현지사
충북 증평	정인체험	김장보쌈, 인절미 고추장	좌구산 휴양림, 삼기저수지
충남 청양	가파	김장체험, 배추절임, 연날리기	칠갑산, 장곡사, 천문대
전북 부안	우리밀	김장체험, 도예체험	청자박물관, 누에타운
전남 해남	동해김치	김치체험, 떡메치기	대흥사, 미항사, 우수영 울독목
경북 예천	출렁다리	미깍두기, 김장체험	용문사, 초간정 금당실
경남 의령	청미래	대봉감홍시맛 깍두기담기	의병 박물관, 충익사, 수암사
제주	제주 명도암참살이	김치담그기 체험, 열무김치	절물자연휴양림, 노루생태관찰원

자료 : 강원도민일보경남매일신문무등일보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제민일보파이낸셜뉴스한라일보헤럴드경제(2015.10.29.) / 강원신문(2015.10.30.)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김장체험 즐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10선」 선정 (2015.10.28.)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5.10.26.)

개요

- [쌀 예상생산량] 426만 톤, 전년(424만 톤) 대비 0.4% ↑
 - 벼 재배면적(천ha) : ('14) 816 → ('15) 799 (전년 대비 2.0% ↑)
 - 단위면적당 생산량(kg/10a) : ('14) 520 → ('15) 533 (전년 대비 2.5% ↑)
- [산지 쌀값] 156,880원/80kg, 평년 동기 대비 7.2% ↓, 전년 동기 대비 7.5% ↓

주요내용

- 20만 톤 시장격리...15년산 과잉예상물량 중 우선 시장격리, 이후 쌀값 추이, 실수확량 발표(11.13. 예정) 등을 보아가며 추가 격리여부를 결정
 - **금년 총 매입량 59만 톤**...공공비축미 36만 톤, 해외공여용 쌀 3만 톤 포함
 - 쌀 부족 등으로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 방출 최대한 자제**
- RPC 등 벼 매입능력 확충 지원...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급 안정 유도
 - RPC-DSC에 벼 매입자금을 각각 1천억 원 씩 **총 2천억 원 추가 지원**
 - ※ 벼 매입자금 추가 지원 : (정부) 1.2조원(상반기 9,725억 원, 수확기 2,583억 원) → 1.3조 원, (농협) 1.3조 원 → 1.4조 원
 -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이자율 상한 조정...3%→2.5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RPC 보증한도 확대...30억 원→50
 - 벼를 많이 매입하는 RPC, DSC에 융자 이자율 인하, 벼 매입자금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 ※ 농협, 민간RPC 매입량 : ('14) 2,046천 톤 → ('15목표) 2,131천 톤 이상, 현재 총 94만 톤 매입

☞ 정책브리핑

- **공공비축미·해외공여용 쌀 차질 없이 매입, 향후 공공비축미 운영방식 개선**
 - 우선지급금...수확기 농가 경영 및 쌀값 안정을 위해 '14년과 동일한 52,000원 /40kg(조곡)으로 지급 중
 - ※ 공공비축미 매입율(10.22일 기준) : 5.1% (매입실적 18.4천 톤/ 계획량 360천 톤)
 - 공공비축미 사·도별 물량 배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16년 이후 적용
 - 고품질 쌀의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에서 다수확 품종은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
- **수입쌀 관리 및 부정유통 방지 강화**
 - **수확기 중 밥쌀용 수입쌀 입찰 판매량판매횟수 축소**
 - ※ 월평균 입찰 판매물량 : (8월) 10천 톤 → (9월) 8 → (10월) 6 → (11~12월) 5
 - ※ 입찰판매 횟수 축소 : (10월) 주 3회 → (11~12월) 주 2회
 - 국산쌀-수입쌀 혼합금지 단속, 수확기 신·구곡 교체시기 맞춰 연산 혼합금지 위반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 실시**
- **쌀 수급 안정 위한 「특별 재고관리 대책」 추진**
 - **9월말 기준 쌀 재고 136만 톤**...적정 규모 대비 약 56만 톤 과다
 - **전년 대비 약 24만 톤 이상의 재고 감축 계획**...가공용 수입쌀 및 국산구곡 재고를 할인공급하여 가공용 쌀 소비를 촉진, 주정용 쌀 공급 최대한 확대
 - ※ 가공용·주정용 공급 확대 : ('14) 29만 톤 → ('15) 37 → ('16) 61
 - **쌀 및 쌀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중국 등 해외 쌀 수출 촉진 지원, 쌀 가공 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확대
 - ※ 지원대상 : 쌀과자 등 6개 → 모든 품목
 - **복지용 쌀 공급 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복지용 '나라미' 공급 대상자 확대
 - 밥쌀용, 가공용 이외 **타 용도로 재고 쌀 처리할 수 있도록 신규 수요처 발굴**
-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
 - △쌀 적정생산 위해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 확대 방안, △쌀 소득보전 직불제 개선 방안, △농지이용을 효율화 방안 등 검토 예정

☞ 연구지원

연구지원 2015년 3분기 국내인구이동

자료 : 통계청(2015.10.27.)

□ 주요내용

- **[전국 인구이동] 이동자 수 180만 명**...전년 동기 대비 4만 7천 명 ↑
 - 이동률 3.52%, 전년 동기 대비 0.08%p ↑
- **[시도별 인구이동]** 경기(25,919명)·세종(12,264명)·제주(4,048명) 등 9개 시도 순유입, 서울(-37,520명)·대전(-4,279명)·부산(-3,064명) 등 8개 시도 순유출

【3분기 시도별 인구이동】

	이동자 수(명)				이동률(%)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2014년 3분기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2014년 3분기
전국	1,796,298	1,796,298	0	0	3.52	3.52	0.00	0.00
서울	371,553	409,073	-37,520	-19,308	3.75	4.13	-0.38	-0.19
대전	51,445	55,724	-4,279	-1,827	3.40	3.68	-0.28	-0.12
부산	119,019	122,083	-3,064	-2,793	3.42	3.51	-0.09	-0.08
광주	49,129	51,877	-2,748	1,443	3.35	3.54	-0.19	0.10
대구	80,380	82,938	-2,558	-9,195	3.25	3.36	-0.10	-0.37
충북	48,217	49,234	-1,017	1,150	3.07	3.13	-0.06	0.07
전북	58,877	59,668	-791	477	3.17	3.21	-0.04	0.03
울산	36,875	37,465	-590	349	3.17	3.22	-0.05	0.03
경기	474,676	448,757	25,919	15,905	3.84	3.63	0.21	0.13
세종	19,500	7,236	12,264	7,275	10.11	3.75	6.36	5.42
제주	20,334	16,286	4,048	2,623	3.31	2.65	0.66	0.44
인천	118,642	115,416	3,226	996	4.10	3.99	0.11	0.03
충남	64,795	62,330	2,465	369	3.15	3.03	0.12	0.02
전남	58,320	56,678	1,642	-2,882	3.08	3.00	0.09	-0.15
경북	76,377	74,738	1,639	5,886	2.85	2.79	0.06	0.22
강원	50,668	49,873	795	-397	3.30	3.25	0.05	-0.03
경남	97,491	96,922	569	-71	2.92	2.9	0.02	0.00

현장여론 발농업 실태와 경쟁력 제고 방안

자료: KREI리porter를 대상으로 장의정보실 자체 조사

※ 본 자료는 연구원이 전국 시·군에 농업경영인 1명씩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KREI리porter가 보내온 농촌 현장 여론과 정책제언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가감 없이 오직만 정리하였으며, 연구와 정책에 활용되길 바랍니다. (현장의 소리 전문은 KREI리porter 사랑방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5. 10. 1. ~ 10. 30.(총 25건)
- 수집대상: KREI리porter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수집

☐ 발농업 실태와 경쟁력 제고 방안

- 현재 추진중인 발기반정비사업의 기계화 사업은 논농업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편임. 밭은 토질이 제각각이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여 **관수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산비탈 등 경지정리와 농업노동력의 고령화로 인한 발농업 기계화가 절실한 실정임.** 또한 **우량품종의 발작물을 개발하고 다품종을 육성 보급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배병열, 전남 무안 외 1>
- 우리 국토의 70%를 산이 차지하고 있어 밭이 많이 분포해있음. 또한 점차 벼농사가 소외돼 발농업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농지가격이 오르면서 밭농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는 추세임. **발농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밭의 특수성을 감안해 관수, 수리시설 등을 많이 설치하고 밭에 적합한 농기계의 개발·보급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임.**<최영호, 충남 부여>
- 논 작목인 벼는 정부나 농협 등에서 수매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밭작물은 개인능력에 따라 받는 값도 달라지며 판매하지 못해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많음. 그렇다 보니 정부는 경지정리, 관정 설치, 소득직불금, 수세지원, 농기계보조금, RPC지원금, 농업용 전기 및 휘발유 제공 등 **전반적으로 논농업 중심의 투자와 정책이 집중되어 왔음.** 상대적으로 취약한 **발농업에 투자를 늘리고 안정적인 판매, 지원 확대 등으로 발농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변해동, 강원 홍천>

-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논농업에 비해 소득이 높다하여 계획 없이 발농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음. 특히 **정부에서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귀농인 지원 혜택이 늘어나면서 발농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과잉생산, 가격폭락, 농가부채 증가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논농사를 짓기 어려운 산비탈에 일구었던 밭농사가 어느새 우량농지를 차지하고 있어 **발농업 관련 지원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함.**<김용덕, 경기 남양주 외 2>
- 최근 힘 안 들고 돈 된다는 오미자 농사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금세 너도나도 생산해 가격폭락을 부르는 일시적인 유인책에 불과할 것이라 생각함. **장기적인 유인책과 대책마련이 필요함.**<송인숙, 강원 강릉 외 1>
- 제주는 적정생산을 목표로 두고 재배해도 타 지역과의 경합으로 고추, 마늘, 양파 등 생산량이 많아 결국 산지 폐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재배면적을 줄여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 생각함.**<김상우, 제주 서귀포>
- 전국적으로 발농업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강원지역 발농업 기계화 수준이 높지 않으며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음. 특히 **논에다 콩을 심으면 직불금을 두 번 받을 수 있는 아이러니한 제도 탓에 발농업 경쟁력은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음.**<유영조, 강원 영월 외 1>
- 중국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작목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역 특색을 무시하고 돈 된다는 작물에 집중하니 과잉생산이 계속 되는 것이 당연한 실정임. **지역 특색에 따라 밭작물을 생산하고 지역별 품목인베를 통해 발농업 경쟁력과 더불어 특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음.**<김현자, 경남 밀양>
- 30여년 전 밭농사를 시작한 경험으로 봤을 때 발농업은 지역별로 잘 생산할 수 있는 자연조건과 생산기술, 시장경쟁력이 확보된 지역, 안정적인 유통경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장 큰 관건이라 생각함. **품목별로 특성화된 지역에서 특산품을 잘 생산해내는 농가에는 적절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생산기술 공유, 유통체계 마련,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로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인 발농업 경쟁력 제고 정책이라 생각함.**<조봉태, 전북 장수>
- 벼농사, 밭농사를 하면 직불금을 주고 있으나 직불금액이 턱없이 적고 신청절차가 까다로워 포기하는 농가가 많음. 서천지역 밭농업 실태를 보면 농산물 수입 증가와 소비 약세로 안정적인 소득 작목이 없는 실정임. 또한 고추, 마늘, 참깨 등 **비교적 수익이 높은 작목을 집중재배하는 것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농촌의 높은 고령화 비율로 인해 다양한 작목의 식재가 어려운 실정임.** FTA 등 국제적인 시장

☞ KREI리포터 현장어론

교류는 소규모 농가에서 선진국과의 품질, 가격경쟁에 도저히 상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국내 발농업은 계속해서 침체될 것으로 예상됨. 심도 있는 발농업 정책과 실행이 시급함.<김영근, 충남 서천>

- 경지정리가 잘된 논과 달리 아직 우리나라 발은 주로 산간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구간별 면적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기계화 농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임. 관수시설이나 구획정리가 잘 안 된 경우 장마철에 침수피해를 입거나 물 빠짐이 나빠 농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논 경지정리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발농업 인프라를 구축해줄 것을 요구함.**<이봉용, 충남 공주 외 3>
-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노동력과 비용은 논과 발으로 비교해서 본다면 발이 논보다 훨씬 높을 것임. 그 원인은 경작조건이 비교적 나쁘고 관리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심과 정책이 논 위주로 세워져있기 때문임. **발도 논처럼 경제성 있는 위치에 경지정리를 하고 발작물에 맞는 농수로개발과 관수시설을 설치해야함.** 특히 지목에 맞는 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농지를 지정하고 품목변경을 할 경우 허가를 받아서 실행하도록 개선해나가야 할 것임.<김정오, 경남 거창>
- 3모작이 가능하고 개발행위가 엄격한 절대농지가 많은 우리나라 실정에는 논보다 발이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야 하는데 실제 논보다 발의 가격이 훨씬 낮은 아이러니한 현실임. **논 중심에서 이제는 발농업 중심의 정책 마련이 필요한 때임.**<나종주, 전남 화순>
- 벼를 제외한 우리나라 주요 식량작물을 발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기상여건, 작황 등 여러 요인으로 가격변동이 크고 지역의 특성과 관계없이 인기작목에 집중해 생산하는 실정 탓에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남.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별 생산해 과잉생산을 줄이고 가격하락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저장해 적정가격으로 공급해야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임.**<유영순, 충남 서산>
- 발농업은 소량다품종 생산으로 가격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음. 발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계화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기계화를 위해 먼저 정부에서 경지정리가 필요하며 농업인 간,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조직화, 생산단지화해 계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임.**<전연수, 경남 의령 외 1>
- 발농업은 비료, 인건비 등 생산비는 계속해서 오르는 반면 판매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수준임. 농업생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려 판매할 수 있도록 현 농협의 신용사업 중심을 발농업 중심 정책으로 개선해주길 바람.<유영조, 강원 영월>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대외협력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